

외형 넓혔지만 투명 재정·인력 확충 과제로

2008 부산불교계 결산 ② - 타종교 비해 예산 배정 적지만 성숙 단계 접어들어

■ 사회복지 분야

2007년 12월 7일 태안 기름유출 사고현장을 복구하기 위한 불교계의 자원봉사 행렬이 올해까지 계속 이어졌다. 수석사에 불교계 재해대책본부 마련하고 전국 각지에서 성금이 모였고, 스님들도 소매를 걷고 사고현장에서 방제작업에 동참했다. 불교는 자비의 종교로 법당에서 배운 자비를, 보살행을 통해 태안 앞바다와 사회라는 도량에서 실천에 옮겼다. 하지만 우리 불교계는 총 수입의 45% 가까이를 사회복지 사업에 투자하는 타종교에 비해 열악한 제도와 예산 배정을 갖고 있다. 올 한해 '제2의 IMF' 위기설로 침체된 경기와 여러 사회병리현상에 시달려 삭막해진 중생의 가슴 속에 따뜻한 자비의 감로수를 뿌려준 부산불교계 사회복지 분야를 정리한다.

■ 복지관 개관·위탁운영 법률

불교계가 운영하는 복지관이 속속 문을 열었다. (사)늘기쁜마을(이사장 지현)은 총 사업비 9억여 원을 투입해 어르신 공경의 도량 '환희정'을 개원했다. 남해 화방사도 재가노인지원센터 '화방동산'을 완공했다. 한편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던 복지관을 위탁 받아 새롭게 개관하고 운영에 들어간 곳도 늘었다. 합

천 해인사(주지 선각)는 경남 거창군으로부터 '거창군 삶의 쉼터'를 위탁 받았다. 이곳은 노인교 여성, 장애인 통합 시설로 사회적 약자인 이들의 교육 및 복지, 문화,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재)내원정소년단(이사장 정련)도 부산 서구청으로부터 수탁 받은 구덕정청소년수련관을 8월 개관했다. 이들 불교사회복지기관은 공적사회복지관의 역할을 보완하는 한편, 종단과 사찰, 포교사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불교적 특성에 입각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 저소득가정 실질 지원

학교폭력, 가출청소년, 인터넷 중독 상담 등으로 요약되던 아동청소년복지가 올 한해 실질적인 지원과 구체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한층 강화됐다. (사)내원(이사장 정련)이 운영하는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랑의 교육전달식'을 갖고, 가정환경이 어려운 100여 명의 학생들에게 무료로 교복을 맞춰주는 행사를 마련했다. (재)범어정소년동네(이사장 정연)는 전문직업 체험프로그램 '판돌이V'에서 오륜정보학교(구 소년원)의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파티클래너에 관련된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 지원 돕는 노인복지

노인복지 또한 도시락 배달, 의료 봉사 및발과 같은 단순 자원활동 수준을 넘어, 사회에서 소외된 노인들이 어엿한 구성원으로 자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해주는 프로그램이 늘었다. (사)금강(이사장 원행)의 마산 금강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일자리를 통해 지역행정지원이, 숲생태 해설사, 문화재 해설사, 실버바리스타, 지하철택배 등 어르신 전문 인력을 양성했다. (사)불국로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이사장 정관도) 공익형 지하철지원과 은빛 치매어르신 봉사, 복지형 노인학대예방교육사업 등을 운영했다. 봉사활동이 아닌 전문 인력으로 상해, 고용보험 가입은 물론, 매월 일정된 임금도 지급한다.

■ 지역사회 보호 및 영역 확대

지역 내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적, 물적 지원연계를 통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가 활발해졌다. (사)불국로(이사장 정관)의 용호종합사회복지관과 (사)늘기쁜마을(이사장 지현) 두송종합사회복지관, (사)해인(이사장 원해)은 지역 내 저소득 가정 대상 노인 도시락배달, 생계비 지급, 김장김치 및 연탄, 보일러 기증 지원, 의약품 지급, 청소와 세탁 등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역사회 안에서 어려운



좌측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삼계탕데이 행사, 마산 금강노인복지관 실버바리스타,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 김장나누기 행사 모습.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보살피고 있다. 2008년 성숙 단계로 접어든 부산 불교사회복지의 '자비심과 이타행'



이러는 초발심을 잃지 않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통한 재정 확보 및 전문 인력의 확충 등이 선결과제로 떠올랐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5대 적멸보궁 10보1배 순례

부산 불광사 보광 스님 1월 1일 출발

"언젠가는 오직 신심만으로 3보1배, 10보1배의 기도를 하는 시절이 돌아오길 바랍니다." 6월 설악산 봉정암을 10보1배 참회기도로 순례해 화제가 된 부산 조읍 불광사 주지 보광 스님(사진)이 2009년 1월 1일부터 5개월간 '5대 적멸보궁 10보1배 대순례기도'를 떠난다.

불광사 앞마당에서 출발해 양산 통도사를 거쳐 강원도 정선의 태백산 정암사, 영월 사자산 범홍사, 평창 오대산 상원사, 인제 설악산 봉정암에 차례로 오른 뒤 다시 부산 불광사로 돌아오는 밀고 먼 여정이다. 한 겨울에 강원도로 떠나는 대순례기도에 건강을 해칠까 걱정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스님은 "1년 전부터 준비해온 건데 아직도 말리는 신도들이 많지만 출고 고단해서 기도를 못한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지금의 어려운 시대를 맞이까지 우리의 거만함을 참회하고, 원망보단 이해와 화합을 통해 새해엔 다함께 힘내자는 발원으로 떠날 것"이란 의지를 다졌다.

하루 8km를 2000번의 절과 셀 수 없이 많은 길음으로 150일간 장장 750km의 대장정 동안 잠과 공양 모두 길 위에서 이뤄진다. "텐트와 침낭, 밥 지을 수 있는 코펠과 버너, 부식거리 등 모두 짊어지고 가며 특별히 위험한 곳이나 인연



이 땅의 절을 만나면 하룻밤 묵어갈 지도 모르겠다"고 했지만 사실 사전에 협의한 사람은 5대 적멸보궁을 비롯해서 한곳도 없다. 스님은 오직 기도를 위해 떠나는 순례이기에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10보1배 기도 순례를 보광 스님이 처음 떠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의상 대사는 경주에서 강원도 양양까지 1보1배를 해 관세음보살을 친견했고, 경봉 대선사는 봉정암까지 3보1배로 순례한 기록이 있다. 스님은 "난 끊어졌던 전통을 이어 부처님 도량을 밟는 고승의 길을 그저 따라가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인에서 불자를 불러들이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그게 포교다"란 제 주 약천사 회주 때부터 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대순례기도를 준비하는 보광 스님은 벌써 다음 순례를 계획 중이다. "다녀와서 몸이 회복 되는 대로 제주도의 사찰들을 10보1배로 순례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10보1배 기도를 원하는 일반인이나 단체는 일정 중 언제든지 동참할 수 있다. 휴대전화로 통해 다음날 출발 위치와 적멸보궁 도착일 등을 수시 확인할 수 있다. (051)809-1420 **박지원 기자**

2009년 준비하는 범어사

2008 범어사의 밤 개최해

범어사의 한 해를 되돌아보고 2009년을 준비하는 범어사 식구들 간 화합의 장이 열렸다. 제14교구본사 범어사(주지 정연)는 12월 9일 오후 6시 부산 코모도호텔 충무홀에서 '2008 범어사의 밤'을 봉행했다. 분말사 스님 및 신도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불, 총무국장 도관 스님의 2008년 범어사 경과보고, 시상 및 감사·공로패 전달, 전계대화상 홍교 스님의 격려사, 범어사 이윤희 신도회장의 축사, 주지 정연 스님의 인사, 축하공연 순으



범어사 주지 정연 스님이 분말사 주지스님 등에 감사·공로패를 수여하고 있다. 또 진행됐다. 특히 시상식에서는 분말사 주지스님 및 신도단체, 사회복지법인, 금정중학교 등 약 50여 명에게 감사·공로패가 수여됐다. **박지원 기자**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 열려

동련 12월 13~14일

불교어린이지도자연수회(사)동련(이사장 지현)은 12월 13-14일 충북 보은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제46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개최했다. "지혜로운 마음으로 햇살 같은 희망을"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국 각 지역불교 어린이지도자, 학인스님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무명 스님의 사회로 입제식을 갖고 조계종 포교부장 계성 스님의 '우리 모두는 주인공이며 진정한 도반', 어린이불교교육연구소의 '신

나는 울동', 어린이불교교육연구소 인성 스님의 '우리는 불자: 불제자 만들기 프로젝트 20' 등 본격 교육에 들어갔다. 14일에는 어린이불교교육연구소의 '찬불가 울동', 동국대학교 불교상담학 김경일 교수의 '행동수정의 원리와 기법, 바람직한 행동을 만드는 방법', 나라HRD 엄민영 대표의 '조직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 한층 심화된 전문 강의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회향식에는 제3회 천진불의 미소 사진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이뤄졌다. **박지원 기자**

임효 작품전

신심을 예술로 승화해 화폭에 담은 미술선이 부산에서 열렸다. 부산 해운대 문화회관에서는 12월 8-14일 한미음선원 원장 대행 스님의 뜻들이 천수경을 동양화 화폭에 그려낸 임효 화백의 작품전이 열렸다. 이번 작품전은 대행 스님의 시화집 <만가지 꽃이 피고, 만가지 열매 익어>에 수록된 동양화 50여 점이 전시됐다. 임 화백이 직접 제작한 한지에 석채 등을 이용한 수묵화 작품들로 명상, 귀의, 무아, 깨달음 등에 관한 의미를 정갈하게 표현했다는 평을 받았다. **박지원 기자**

미륵존불 개산비 제막법회

한국미륵불교 무량사서

한국미륵불교 총본산 고성 대무량사에서 '당래교주 자씨 미륵존불 개산비' 제막법회가 12월 8일 열렸다. 이날 제막법회에는 종정 법련 스님, 종회의장 만오 스님, 총무원장 송봉 스님 등 대덕스님과 기관장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제막법회는 사미계수계법회 후 봉행됐다. 종정 법련 스님은 "몸과 마음을 제대로 욕도사상 삼계를 해매는 인간을 닦고 소멸시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 제도해야 한다"고 법문했다. 또한 총무원장 송봉 스님은 "불기 2547년 8월 1일 한국미륵불교종단



설립, 불기 2548년 2월 28일 사단법인 창립 이래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사)한국미륵불교가 번성한 모습에 종도들께 감사드린다"며 "한국미륵불교 종도들께서 미륵신선을 두고 열심히 수행정진해 수량무공하시고 자비광명하신 미륵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하루속히 하생하시기를 기원하며, 종단의 번성발전과 미륵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기를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자동차용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자동차사고 예방 점진식과 축원불공마체! 자동차를 타고다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 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 동안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반가사유상 호신불이다. 우리나라 호신불의 역사는 삼국시대 신라부터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

운전하는 가족친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신차출고시 사고예방과 생명보호의 선물

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몸에 지니고 전쟁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전해진다. 한 치 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인 반가사유상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하는 남편께, 존경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따다를 선물은 될것입니다. 신라 화랑장수와 귀족들이 수호신으로 사용했던 호신불을 재현한, 반가사유상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과 백연화를 넣었다. 생명보호와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동호신불을 자동차 운전석 위 틀림없이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 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45,000원
신청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2008년 11월 28일 부터 나가는 삼재시작! 나가는 삼재화를 소멸하고 승리하는 비방! 2007년 드는삼재 2008년 묵는삼재 2008년 동지달 부터나가는 삼재가 시작될 소띠,뱀띠,닭띠는 앞으로 2009년까지 제일 어렵다는 나가는 마지막 삼재해로 각별히 조심하고 자동차아하며 근신하는 마음으

2009년 가는 삼재조심 소띠,뱀띠,닭띠

제일힘든 떠나는 삼재소멸과 365일 무탈 발원 금강저

로 조용히 지내야 한다. 드는해와 묵는해에 소띠,뱀띠,닭띠생들이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려 고통받고,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실패하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는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2009년말까지 나가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완벽한 비방을 하는것이 안전합니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를 막아 액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중생들에게 부처님법구인 금강저를 풀어주시고 다니게 하고 나가는 삼재해에는 365일간 삼재소멸 불공과 무탈기원을 합니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동차아하며 공

1929년생 뱀띠	1957년생 닭띠	1985년생 소띠
1933년생 닭띠	1961년생 소띠	1989년생 뱀띠
1937년생 소띠	1965년생 뱀띠	
1941년생 뱀띠	1969년생 닭띠	※적성글씨에 해
1945년생 닭띠	1973년생 소띠	당되는 분은 약
1949년생 소띠	1977년생 뱀띠	삼재입니다.
1953년생 뱀띠	1981년생 닭띠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불공 마쳐

소중한 남편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법구에는 세상은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가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불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역시 연이되면 돈이 동서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을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묘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평생 부자되게 축원불공을 마친



다라니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돈이 들어오게 하는 비방의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고급소가죽에 금나노, 은나노 처리 까지만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불광사에서 지갑 사용하실 분의 물질의 소원과 원대한 계획이 성공되게 생년월일을 알려 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립니다. 남성용 금나노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은나노장지갑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